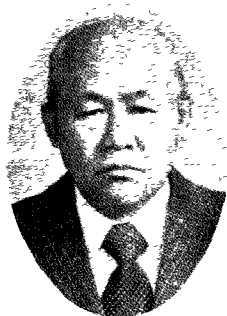


내 꿈을 養鷄에 심고

내 남은 삶은 餘생도 지난날과 같이

이 창 열

(이문부회장 대표)



◇…머릿말

내가 양계업에 처음 손을 댄 것은 해방이 되던 1945년 8월 17일 내 나이 32세 되던 해였다.

우연한 기회에 일본인들이 기르던 닭 1,000여수를 인수받아 그 당시 양계촌에 속하던 이문동에다 계사를 지어 시작한 것이 내 평생 종사할 업이 될줄 그 당시엔 짐작도 못한 일이었다.

다른 어느 사업도 모두 다 기복이 심하겠지만 유난히 파란곡절이 많은 양계업계에 40여년씩 몸담아 왔으나 막상 지난 일을 하나하나 들추며 “회고담”을 쓰는 것은 참으로 겸연쩍은 일이 아닐수 없으므로 우선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회고해 보건대 해방전에는 이문동에는 여섯군데 정도의 양계장이 있어 거의가 다 일본인들이 경영하고 있었으며 한국인은 거의 드물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이문동외에도 왕십리, 양주, 송파, 광주, 시흥 등이 양계촌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당시 양계의 규모란 지금은 비교도 안 될만큼 영세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왕십리 지대는 배수통풍이 안되는 저습지대이어서 항상 병이 돌았으며, 닭의 종류는 주로 레그혼이었고 그외에 나고야, 고짱, 프리마우스룩이 간혹 섞여 있을 뿐이었다

◇…양계조합의 결성

해방이 되자 정국은 아직 어수선하였으며, 불가시세도 불안정하여 그 속에서 양계인들은 사료나 종란, 병아리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자 자연히 그 어려움을 공동 극복 해결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경기, 서울지역 양계인을 중심으로 일어나 결국 양계조합이 결성되게 되었다.

구본홍, 강명호, 박승곤, 장후원, 본인 등의 주축 멤버가 구성되자 16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10월 27일 구본홍 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고양군 송인면(현 송인동)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양계조합의 출범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우선 계란의 공동판매, 사료의 공동구입, 병아리의 공동구입 등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곧 강명호씨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조합운영을 시작하였다.

사료는 그 당시 만주에서 내려온 밀, 호밀, 수수 등의 잡곡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어서 이 잡곡들이 조합으로 내려오면 소비자들은 조합을 통해 사료를 구입하여 적당히 자가배합하여 사용했다.

◇…육추을 70% 산란능력 170 여개

그외에도 생선대가리 같은 것을 섞어주었으나 닭의 품종이 개량되지 않아서인지 산란능력이 60~70%정도로 연간 170~180개의 알을 생산하였고 피크때라도 175개 정도가 고작이었다

육추의 어려움은 말할것도 없어 추백리나 회충증 등의 질병이 끊임없이 돌아 70% 정도의 육추율밖에 오르지 않았다.

약도 별로 없어서 회충의 구제에는 해인초나 전매청에서 나오는 가루분말을 얻어다 쓴 기억이 난다. 그때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접대식품이라는 선입견이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뿌리박고 있어서 “씨암탉을 잡아준다.” “약병아리를 고아 먹는다.” 등의 문구가 양계산물의 귀함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또한 요리방법으로도 영계백숙이나 국 등의 기본적인 원시적인 요리법 밖에 없어 그 수요가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기존업자들의 양계규모는 커지기 시작하여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로 제정되던 해에는 그동안 50여명으로 조합원수가 늘어나 있던 양계조합은 서울시와 경기도조합으로 분리되어 시청 농림부내에 서울시 양계조합 사무실을 두고 본인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서울시 양계조합 초대 회장에

서울시 양계조합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여

러가지가 있었으나 그중 가장 팔목할 만한 것이 계란을 50만개 정도 겨에 파묻어 홍콩으로 수출하여 축산물의 해외 수출에 효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외에도 계란을 외국인전용백화점에 납품하였고, 계란심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날이 갈수록 양계업의 붐이 일어나자 서울시 축산협동 조합에서는 산란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그당시 본인과 박도현 씨등이 수상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순풍이 돛을 달고 규모가 자라가던 양계업이 다른 모든 사업과 함께 하루 아침에 서리를 맞게 되었으니 그것이 6.25동란이었다.

나는 피난중에도 부산의 압남동(현 동물검역소 자리)에서 약간의 양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6.25이후에는 극히 침체된 양계업은 계란 10개가 쌀 1말의 값이 될만큼의 불황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 어둠속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원조물자중 종란 20만개가 들어온 사실이었다.

이때 뉴햄프셔종이 처음 들어와 서울시 지도자들이 숫병아리 시식회를 베풀어 그 맛을 평가하기도 했었다.

그 당시 부화규모는 해방후 해동공사에서 입체부화기 4대와 대한농회 1대, 농사시험장 1대 정도로 아주 드물어 부화가 힘들다가 6.25 직전 미국에서 도입되어 각 대학 연구소 등으로 배부되었던 큐크리 20대가 부화업에 약간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었다.

◇…부화협회, 가금협회의 결성

그러나 종란의 부족과 감별사의 부족은 메꿀길이 없어 강금노, 이정희, 이상수, 장인길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부화협회가 결성되어 부화업의 육성과 감별사 양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외에도 양계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양계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습득이 어려웠으므로 서울의 장안동에서 이기능 씨의 15명이 장안양계친목회를 조직하여 매월 1회씩 장안국민학교에서 그당시 미네소다 대학에서 최신양계를 공부하고 들어온 오봉국 교수를 강사로 하여 양계에 관한 기술강습회를 개최하는 등의 모임을 열고 있었다.

그것이 태동이 되어 1962년 12월 5일 한국가금협회가 회원 120명으로써 창립총회를 열게 되었다. 이 가금협회는 가금 생산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과학적 기술을 교환 촉진하여 가금산업의 개량 발달을 꾀하고 상호의 친목도모 가금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초대회장은 윤 상원 학장이 선출되었고 2대회장에 이재근 교수, 부회장은 김원복 씨와 본인이 선출되었다.

이 한국부화협회와 한국가금 협회의 초창기는 모두 내 이문동집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난히 생생하게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 지금도 가끔 그무렵의 일들을 상기해보곤 한다.

◇...양계업의 수준성장이 내 꿈

양계업에 몸담은 이상 신의 뜻대로 자신의 천직에 주력해 보자하는 것이 내 신조 였으며 약속을 하면 필히 그것을 이루는 것 또한 내 생활지침이었던 그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의견충돌을 빚기도 하였지만 내 가슴 속에는 늘 양계업의 수준성장을 위한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그후에 내 이문동 땅의 계사와 부화장에만 총력을 기울여 이문부화장을 지켜왔으며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태양열 사업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된 양계를 해외로의

양계수출 사업에도 주력하고 싶어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으며, 곧 호주에도 가 볼 생각이다. 그리고 현혈하는 사람에게 계란 한개씩을 공급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긴 것임이 회갑을 지나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선걸 느끼며 허무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나 아직도 내 남은꿈이 있는한 지난날의 정력과 같은만큼의 힘으로 내 여생을 살아보겠다고 새삼스럽게 다짐하며 붓을 놓는다.

本 籍 : 서울特別市東大門區里門洞 543

現住所 : 서울特別市東大門區里門洞 281

《學歷 및 經歷》

1914年 1月 15日生

1939. 3. 30. 중앙기독교청년학교 영어과 졸업

1945. 8. 20. 이문양계부화장장 경영

1953. 1. 12. 서울특별시 양계조합장 피선

1961. 11. 4. 서울특별시 축산협동조합 피선

1962. 2.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의원 피선.

1963. 4. 24. . 사단법인 국제농림수산물기술교류협회 부이사장 피선

1964. 9. 14. 일본 개최 농림수산물기술교류회의 축산대표로 참석

1965. 1. 10. 사단법인 한국 부화협회장 피선

1970. 10. 7. 일본 양계시찬단장으로 일본시찰

1971. 10. 9. 동남아 양계업계 시찰

1972. 3. 15. 국민재건운동 동대문구위원회 부위원장 피선

1975. 2. 10. 한국무공해에너지 개발연구소 개설